
저자 (Authors)	정삼철
출처 (Source)	월간 공공정책 149, 2018.3, 61-63(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자치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91696
APA Style	정삼철 (2018). [정책제안]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발전방향. 월간 공공정책, 149, 61-63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발전방향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급성장

요즘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급증, 개인주의 심화 등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무료함과 외로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 규모도 급성장하며 발전하고 있다. 즉, 펫코노미(Pet-Economy)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관리와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해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제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한국펫사료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화 및 온라인 설문방식을 통해 실시한 “2017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천956만 가구의 28.8%인 563만 가구가 반려가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3가구 중에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양육 중에 있는 반려동물도 925만 마리로 추산된다.

반려동물의 종류도 전체의 72%인 666만 마리가 반려견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반려묘(고양이) 207만 마리, 물고기 23만 마리, 햄스터 12만 마리, 새 9만 마리, 기타 파충류가 8만 마리 등으로 나타나고, 최근에는 동물 이외에 반려식물까지도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가 593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고, 전체 가구 중에 개를 기르는 가구는 24.1%, 고양이는 6.3%, 기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1.4%로 추정하고 있다(한국농

촌경제연구원,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결과”).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경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신조어도 다양하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펫팸족(Pet+family)이나,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 시장을 지칭하는 펫코노미(Pet+Economy),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시터(Pet+baby sitter), 반려동물 관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펫파라치(Pet+Paparazzi),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촬영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펫토크래퍼(Pet+photographer),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의미의 펫로스((Pet+loss), 그리고 반려동물과 사회 및 특정 구성원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를 의미하는 펫티켓(Pet+Etiquette)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한 다양한 자격증제도가 생겨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심지어 요즘엔 각 방송사에도 <TV동물농장>(S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EBS), <개밥주는 남자>(채널A), <하하랜드>(MBC)와 같은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 등이 생겨나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국내외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새로운 성장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이들 산업을 국가 신성장산업으로까지 인식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9천억 원에서 2015년에는 1조 8천994억 원으로 2배로 성장했고, 2020년에는 5조 8천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지혜, 「국내 펫코노미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7년 7월호).

최근에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향후 성장유망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그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대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반려동물산업에 뛰어들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지출액도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펫사료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12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용품 관련 소매업의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동물병원의 카드 결제액도 지난 2012년 4천 628억 원에서 2016년 현재 7천864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 및 부정적 영향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늘어나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촉진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창업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외로움을 극복하고 일상적 사회생활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서 관련 용품제조 산업과 서비스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펫웨어를 기기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미국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 리서치에서는 반려동물 웨어러블 기기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오는 2022년에 23억 6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이다. 이외에 요즘에는 훨씬 다양해진 반려동물 관련 용

품제조업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전용 미용, 병원, 카페, 스튜디오, 교육훈련원, 호텔, 장묘업, 판매업, 생산업, 보험업뿐 아니라 반려동물 여권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반려동물 사육가구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등록률은 전체 대상의 38%에 그치고 있고, 반려동물들에 대한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피해도 늘어나고, 이웃 간에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함부로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결코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이 마련돼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결여와 문화의 미정착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면이다. 이로 인해 가족처럼 평생을 함께해야 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현실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반려동물산업이 국가의 주요 전략 수출산업으로 인식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의 마련과 정책적 추진요구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반려동물산업 육성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제약점이 많아 산업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반려동물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면서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법률인 ‘(가칭)반려동물 보호 및 관

련 산업 육성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현재 동물복지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지자체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는 총 11건이 제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조례는 경기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조례가 유일한 실정이다. 이는 아직 상위 근거법령 기반이 제정돼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석된다. 이에 정부 차원의 관련법 제정이 올해 내에 이뤄지면 각 지자체들로 관련 조례의 제정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신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경쟁과 기업 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과 발전 방향

이처럼 국내외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반려동물 수요의 지속적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지만 부정적인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으로, 국가적 미래전략 산업이자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활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적극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주어야만 국가 차원은 물론 지자체들도 반려동물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육성 촉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반려동물보호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와 함께 적극적인 발전 정책 대응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최근에 한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해 각종 사고와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여

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한 의식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도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펫티켓 문화의 실천과 참여가 필요하다. 과거 애완동물이 소유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반려동물은 사람과 동등한 생명체의 개념으로 의식이 바뀐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숙한 문화적 정착이 없는 개인적 갈등뿐만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간 사회적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반려동물에 의한 사망사고와 인명상해가 발생한 이후에 다행히도 제도적 개선과 펫티켓 실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부터는 펫파라치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 실천의 생활화와 끝까지 책임지는 선진시민 반려인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건전한 반려동물 보호와 바람직한 산업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반려인들의 책임 있는 의식과 펫티켓의 준수, 비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공감대를 가지려는 사회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도 이러한 정책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건강한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❶

정 삼 철

청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실장, 미래기획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역 경제 및 산업발전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